

여성 없는 페미니즘, 불가능한 페미니즘

- 타니아 모들스키 저, 노영숙 옮김, 『여성 없는 페미니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8. -

조 현 준 *

1848년 뉴욕의 세네카 폴즈에서 만난 여성들이 여성의 참정권 투쟁을 시작한 이래 1920년 수잔 B. 스탠튼과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은 드디어 오랜 운동의 성과를 얻어냈다.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19차 수정헌법이 미 상원과 하원의 2/3 이상, 그리고 50개 주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페미니즘의 지형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이후 88년간 페미니즘은 어떤 지각변동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것인가?

1920년대의 페미니즘이 정치적 '평등'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면, 1968년 프랑스 학생 혁명을 기점으로 한 60년대의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임을 표방하는 '차이'의 페미니즘이자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범주와 경계구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남녀의 성차가 생물학적 운명이 아니라면, 여성성과 남성성도 문화적 효과이거나 법의 결과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 없는 남성성이나 여성성

* 성신여자대학교 영문과 강사

자체가 상호 교차성과 유동적 양가성을 가진다는 관점이었다.

다시 말해 1세대 페미니즘이 ‘평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법적 지위에 초점을 두었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 집단 안의 인종, 계급, 식민 경험의 유무, 성적 경향성 등 다양한 내적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만의 생물학적 특징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장애로 제시되기도 했고, 타인을 한 몸에 끼안는 고매하고 숭고한 윤리적 체험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3세대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소위 ‘포스트 페미니즘’은 여성성이 무엇인가에 의문을 던지는 ‘정체성’의 페미니즘이 되었다. 극복해야 할 장애이건 숭고한 윤리이건 어떤 속성을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성이 언제나 변화하는 과정중에 있는 데다가 언제나 자신의 내부에 이질적 타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속성이나 본질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런 맥락에서 1980~90년대 미국 페미니즘의 진영에서는 실제로 남성성이나 남성적 주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수한 젠더로서의 남성성이 미국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앤서니 로툰도(Anthony Rotundo), 여성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규범적 남성성의 타자로 구성된 여성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카자 실버만(Kaja Silverman), 그리고 규범적 남성성의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갈등과 고통을 연구하는 캘빈 토마스(Calvin Thomas) 등이 그 대표적 연구자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흑인의 남성성이나 동성애적 남성성에 대한 연구 등 페미니즘 내의 남성성 연구는 다양한 갈래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그간 적대시해왔던 남성성이 페미니즘 연구의 한 영역이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같은 페미니즘 내의 남성성 연구는 과연 페미니즘의 발전과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브 코조프스키 세취윌은 『남성들 사이에서:

영문학과 남성 동성애적 욕망』(1985)에서 영문학 작품속에 많이 등장하는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에로틱한 삼각관계에서 표면상의 이성애 뒤에 존재하는 남성사회적 동성애에 주목했고, 남녀간 이성애뿐 아니라 남성간의 동성애 연구가 페미니즘적 사회 관계성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¹⁾ 리 에텔만도 게이비평과 페미니즘의 결합이 호모포비아와 여성혐오 연구간에 연대적 사고의 가능성을 넓혀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모색했다. 반면 『여성 없는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문화와 비평』(1991)의 저자 타냐 모듈스키(Tania Modleski)는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의 선부른 관심은 오히려 페미니즘의 정치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게이 중심의 호모포비아 논의는 페미니즘의 논의를 증진시키긴 커녕 현재 레즈비언이 처한 위협을 간과하게 만들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적 재현물의 해석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온 문화비평가 모듈스키는 이론적 해체주의를 경계하고 여성적 관점의 회복을 모색했다. 심리적 동일시 뿐 아니라 물리적인 몸조차도 당대의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극단적 구성주의가 수반하는 가치의 상대주의는 페미니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페미니즘의 기반을 흔드는 데 일조하리라는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듈스키는 제3세대 페미니즘, 즉 ‘비정체성의 페미니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공중에 흩날리고 부표처럼 부유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20세기말 다시금 일레인 쇼월터를 부활시키고 2세대 페미니즘으로의 복귀를 외치는 모듈스키는 일견 시대를 거슬러가는 아나크로니스트 같기도 하다. 그러나

1)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한편으론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이 정말 과연 페미니즘일까 의구심이 슬며시 들기도 한다. 과연 페미니즘에는 여성이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일까?

1995년 출간된 『페미니즘 논쟁: 철학적 교환(Feminist Contentions: A Philosophical Exchange)』²⁾은 바로 이같은 여성 주체의 문제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논쟁적 방식으로 접근했다. 당대의 쟁쟁한 페미니스트 철학자 세일라 벤아빕(Seyla Benhabib),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드루실라 코넬(Drucilla Cornell),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간의 비평적 교차 글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 책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시대에 과연 여성없는 페미니즘이 가능한지에 대한 갈등을 꼼꼼하게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했다. 벤아빕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인간의 죽음, 역사의 죽음, 형이상학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는 페미니즘이 거부해야 할 대상이며 해방의 정치학에 어떤 철학적 요건이 필요한지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버틀러에게 중요한 것은 해방의 정치학을 위해 어떤 철학이 필요한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철학적 전제가 해방의 정치학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며, 주체는 그 정치적 권력담론의 행위주체성(agency)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프레이저도 정치성이 개입된 크고 작은 서사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중간적 위치를 벤아빕이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던 철학없는 사회비평은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코넬은 버틀러처럼 토대주의나 근본주의 원칙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페미니즘이 타자와의 비폭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윤리적 자세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주체

2) Seyla Benhabib et al., *Feminist Contentions: A Philosophical Exchange* (New York: Routledge, 1995)

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벤아빔과 프레이저는 페미니즘의 여성 주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버틀러와 코넬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해체된 여성 주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가 근본적 토대위의 안정된 주체성을 주장한다면, 후자는 우연적 가변성 위에 있는 불안정한 행위주체성을 페미니즘의 정치주체로 삼는다.

『여성없는 페미니즘』에서 모들스키는 전자의 입장을 공유하는 맥락에서 여성 범주를 부정하기보다는 여성이라는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한 결집을 역설한다. 모들스키는 페미니즘의 정치주체 여성의 결속을 주창하면서 페미니즘내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경계하고 남성성 연구경향을 우려한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의도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남성간 동성애(hommesexual)’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232쪽) 여기서 저자를 포함한 여성 집단을 지칭하는 ‘범주’로서의 여성은 ‘우리’의 이름으로 소환된다. 여성 주체적인 여성성은 재확립되어야 하고, 여성정체성의 상실과 여성성의 남성적 전유는 다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여성 없는 페미니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1990년대 페미니즘의 무대에서 ‘여성’이라는 페미니즘의 주체를 다시금 불러들여 남성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회적 유대와 동성애적 연대를 경계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크게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1-3장)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2부(4-6장)는 실제의 구체적인 문화 읽기 작업으로 남성중심적인 관계에 천착하는 실제 대중영화나 그 안의 인물을 분석한다. 3부(7-8장)에서는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희생자로 재현되는 여성의 몸을 강조함으로써 아직도 페미니즘에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주체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논점을 역설하고 있다.

1부는 여성비평의 창시자 일레인 쇼월터에 대한 재평가로 시작한다. 모들스키는 쇼월터야말로 주체라는 개념이 격변을 겪는 시대에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페미니즘 비평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극찬한다. 모들스키가 지금 새삼 쇼월터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이유는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논의나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론이 보여주는 반본질주의가 오히려 페미니즘의 토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모들스키는 “오늘날 소수의 페미니스트가 이론화하고 있는 반본질론의 입장이 극소수의 특권층 여성에게만 열려있는 사치스러운 이론이 되지 않을까 걱정”(41쪽)한다. 주체를 가진 사람만이 주체 부재의 놀이를 할 수 있는데 그녀가 보기에 여성은 아직 주체를 가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접근방법도 해방이론의 가면을 쓴 남성적 관점이 만든 잘못된 성적 비유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론적인 층위에서의 다의성을 말하는 문학적 화용론도 사실은 현실의 쾌락과 권력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들스키가 생각하는 여성성과 그것의 다양한 전유 가능성은 마누엘 푸익 원작의 영화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구체화된다. 그녀는 발렌틴과 몰리나라는 두 명의 남성 재소자가 어떻게 기존의 고정된 이분법적 남녀관계를 전복해서 정치와 개인영역의 혁명성을 보여주는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거미여인은 생물학적 남성인 몰리나이다. 이는 남성성은 생산과 노동이고 여성성은 소비와 수동성이라는 더글라스 식의 성별 분업의 이원론을 벗어나, 남자도 유혹하는 여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발렌틴이 몰리나의 타자성을 수용하고 양성간의 가치를 전도하면서 전통적 남성성을 풍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섹스와 젠더의 경계 위반이 이루어진다. 고문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마약의 환각상태에서 발렌틴은 몰리나를 ‘거미 여인’이라 부르고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거미줄이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에서 나오고 있다. 거미줄은 그녀 몸의 일부이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털복숭이 밧줄처럼 보인다. 역겹다. 내가 그걸 만지면 무척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것 같다. 하지만 만지면 구역질이 나겠지.”(51쪽)

남성적 영화속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 영화 분석은 2부에서 더욱 풍부해진다. 1부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선언적 양상을 띠는다면 2부는 문화비평가로서의 모델스키의 재치있고 날카로운 작품해석의 통찰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2부의 4, 5, 6장은 각각 <탑건>, <세 남자와 아기>, <빅탑 피위>에 대한 세밀한 작품 분석에 할애된다. 1부에서 소개된 <거미여인의 키스> 분석은 ‘가면’이라는 주제로 게이 퀸³⁾ 폴리나의 유혹의 기술에 발렌틴이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동성에 남성이 여성성을 차용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했다면, 2부의 작품론은 주로 전쟁, 모성, 그리고 남성성의 관점에서 오늘날 다양한 남성 중심적 이성애적 관계를 재현한 영상물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델스키는 상업적인 미국 전쟁 영화 속의 남성 쇼비니즘, 남성의 육아기를 다룬 오락영화 속의 숨겨진 모성성 찬탈의 기획, 그리고 마치 페니스처럼 과도하게 크기 위주로 시각화되는 남성성의 판타지를 차례로 비판한다. 이런 남성 중심적 재현물 속에서 여성과 모성이 어떻게 잘못 조작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에 맞서는 여성의 의식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4장은 주로 남성 중심적 전쟁영화 속에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한다. <탑건>, <하트 브레이크 리지>, 그리고 <플래툰>은 각각 아들의

3) 남성 동성에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을 일컫는다. 반대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게이 마초라고 불린다. 게이 마초/게이 퀸은 경우에 따라 각각 탑/바텀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점, 아버지의 시점, 그리고 두 아버지를 둔 정신적 아들의 시점에서 바라본 소비니스트적 전쟁 영화인데 여기서 여성성은 정복의 대상으로 물화된다. 들뢰즈가 말하는 매저키즘의 ‘매맞는 아버지’조차 모자간의 동맹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 어머니가 ‘아들’과 맺는 남성 페미니즘과 유사하다고 간주된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내쫓는 역할에 불과한데다가 새디즘의 경우 어머니에 대항하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동맹이 포함되기 때문이다.(106쪽) 전쟁영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은 전쟁에서 유일한 권위로서의 남성적 특권을 부정하고, 유효하고 필요한 대안적 관점으로서 여성의 관점을 말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적이 아니라 권리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은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생식기능을 뺏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 및 어린 소녀에 대한 남성의 이상성욕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 판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와 미국판 <세 남자와 아기>는 대리모성 및 아버지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성 속의 여성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모델스키는 사실상 이 영화들이 어린 여아에 대한 성인 남성들이 보이는 일종의 유아이상성욕(pedophilia)으로 설명한다. 늙은 세 남자가 어린 한 여자에게 보이는 추한 성욕을 양부의 부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세 노총각에게 부과된 업동이 여아의 이름은 ‘메리’였는데 이는 처녀생식을 하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단어이고, 이는 남성이 처녀생식을 해서 여성 고유의 것이던 재생산의 영역까지 찬탈하고 싶은 남성적 욕망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영화에서 남성의 거세불안과 여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3인의 대부>의 희생, 구원, 성서적 아버지처럼 남근 중심주의를 되울리며, 어린 소녀와 양부의 관계를 다루는 영화 서사에서 양부는 어린 소녀의 진짜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 혹은 종교적 아버지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모녀관계보다 부녀관계를 강조해서 딸들이 페미니

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 된다는 지적이다.

6장은 13살 소년이 갑자기 30살로 변해 성애적 쾌락을 즐기다가 다시 13살로 돌아오는 <빅탑 피워>를 중심으로 남성의 성애적 가능성이 질적 남성성의 성숙과 등치되는 판타지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사춘기 소년, 꽃미남 게이, 무성적 천사, 혹은 거식증 환자까지도 미성숙한 남성성의 표방이자, 남성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런 영화 속에서 영원히 젊은 남자가 거부한 시간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어있는 것은 바로 현실의 여성이라는 주장이다.

3부에서는 성 인종 계급이라는 삼중고에 놓여있는 흑인여성의 몸에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에디 머피의 <미국의 가다>, <안개 속의 고릴라>, <블론드 비너스>는 흑인남성과 백인여성의 금기시된 관계 및 대중 영화속 흑인여성의 재현 양상 중심으로 논의된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성애화된 남성의 몸에 대한 두려움을 억압하는 방식, 즉 남성 동성애의 억압을 다룬다면, <리셀 웨폰>, <48시간>, <테킬라 썬라이즈> 등은 남성 동성애의 쾌감과 유혹을 놀랍도록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한다. 이는 남성들간의 동성사회적 욕망을 형성하고 여성은 그 바운더리 밖으로 내몰거나 무시하거나 오독한다. 이것들이 모들스키가 말하는 아직 젠더를 넘어 나가기에는 이른 상황적 표식이다. 트랜스 젠더를 말하는 다양한 방식이 잘못하면 남성동성애경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장점은 마치 독자가 몇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느끼도록 할 정도의 치밀하고 꼼꼼한 구체적 영화 읽기와 그것의 현실적 파급력에 대한 분석에 있다. 그러나 때로는 도발적이고 과감하며, 때로는 흥미롭고 시선을 당기는 대중문화에 대한 흡입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단히 선언적이고 규정적인 언어로 당대의 문화현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해석이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빠딱하게 읽기’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모든 읽기는 객관적일 수 없으며, 정치적 오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여성을 페미니즘의 깃발아래 다시 하나로 단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소환되는 ‘범주로서의 여성’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질 수 있는가?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인 이성애주의 제도권 지식인 여성 모듈스키는 여전히 남녀의 대립구도 안에서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비판점을 집결해서 이에 대항할 여성들의 의식과 분노와 복수를 주창한다. 지금은 여성이 배제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 사회라서, 이에 대한 자기인식과 저항, 나아가서 여성과 여성간의 연대적 관계를 꿈꾸는 대안사회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대립항만 전도된 또 다른 이분법의 재생산이 아닐까? 남성 동성 사회대신 여성 동성사회를 주창하면 남녀간 대립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성애는 여성의 관점에서 존중되고, 동성애의 경우 레즈비언은 찬미되지만 게이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는 또 다른 본질론이고 또 다른 억압이 아닐까?

따라서 이 책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되짚어볼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남녀의 고정된 본질을 주장하면 여성은 희생양이나 피억압자, 남성은 지배자나 억압자라는 기존의 이분법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여성도 계급, 인종, 성적 경향, 식민경험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안에 공존한다면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의 희생자라고 보는 것은 그 현실적 실천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여성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오독되거나 배제당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남성연대에 저항하는 여성 동성사회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방식 또한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억압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의 적이라면 여성내부의 남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이나 트랜스 젠더, 트랜스 섹슈얼은 어떻게 겨안을 것인가? 게이는 배척하고 레즈비언은 보호

해야 한다면 그것은 똑 같은 억압구도를 유지한 채 대립항만 전도하는 또 다른 배제의 구조를 생산하지 않겠는가?

모들스키는 여성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무화하는 여성연대의 가능성으로서 영화 <사랑과 영혼>(1990)의 한 장면에 특히 주목한다. 남편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는 몰리(데미 무어)의 간절한 소망에 설득되어, 영매 오다 매 브라운(우피 골드버그)이 샘(패트릭 스웨이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장면이다. 오다 매의 검은손과 몰리의 흰 손이 맞잡는 순간 샘은 오다 매에게 빙의되고 현실과 달리 영화속에서 오다 매는 샘으로 시각적으로 변모한다. 모들스키는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독해방식을 제시하는데 오다 매가 샘으로 변하기 직전 마주잡은 오다 매와 몰리의 손은 인종을 뛰어넘은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여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극찬되는 반면, 그 이후 여성 영매가 남성 영혼에게 몸을 내어주면서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버렸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빙의 직전 마주잡은 검은 손과 흰 손은 희망적 해석이 가능한 여성동성 사회적 관계를 뜻하고, 빙의 후는 남성에게 몸을 양도한 여성의 완전한 절멸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히려 백인 안의 흑인성, 흑인 안의 백인성을 말하려던 순간이 흑백 분리와 동성애 금기라는 제도규범의 보이지 않는 힘때문에 백인 남녀의 규범적이고 낭만적인 이성애로 귀결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헐리웃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백인 여성성을 흉내내는 흑인 여성 드랙⁴⁾으로 전형화되어 있다면 해부학적 구조와 문화적 젠더와 성적 행위는 전복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생물학적인 흑인 여성이 자신의 몸을 영매로 제시한 짧은 순간에 백인 남성이 될 수 있다면, 정체성이란 그

4) 드랙은 드랙 킹과 드랙 퀸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남장 여성, 후자는 여장 남성을 말한다.

병의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섹슈얼리티도 교란된다. 백인 남성의 영혼을 가진 흑인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을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 동성애과 이성애가 서로를 타자로서 자기 안에 안고 있을 가능성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본질없이 행위중에 구성되는 수행적 정체성이고, 패러디적 반복의 웃음이 가져올 다양한 재의미화의 가능성인 것이다.

모들스키가 깊이 천착하는 문제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이다. 누가 이야기하는지에 무관심한 것은 실제 무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을 가장한 가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낸시 밀러의 말을 인용하고 있듯, 서명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가지지 않는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서명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57쪽)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논의하기위한 더 심도 깊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페미니즘이 대중문화속의 유혹적인 성적 비유들을 분석하고 그에 도전하면서, 부표하는 모호한 주체의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해체론의 가면을 벗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페미니즘이 말하는 ‘우리’와 ‘나’의 문제가 사실 생물학적 성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다양한 스펙트럼하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일도 그만큼 의미있지 않을까?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문화 비평서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성성 대신 여성성, 남성 동성사회대신 여성동성사회를 주장하면, 남성 억압자/여성 희생자, 혹은 행위자 남성/유혹자 여성의 이분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뿐더러 이성에 사회속의 여성동성에 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적 유토피아를 꿈꾸게 될 것이다. 이는 여성 범주안의 백인과 흑인이라는 인종적 화합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남성을 적대시하고 남성성 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차와 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집결과 집단 투쟁을 강조하는 ‘올드 페미니즘’과, 여성들 내의 다양성

과 개인성,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영 페미니즘’ 간의 갈등으로 재생산될 수도 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다양한 조직간의 연대와 해체가 자유롭고 하루에도 수십번 변모하는 사이버 주체인 21세기의 ‘나’를 설명하기에는, 계급과 인종을 넘어서는 ‘우리’ 일반 여성들간의 연대가 너무 고루한 과거의 선언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